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시승기

현대차가 새해 첫 신차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택이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까지 왕복 약 100km 구간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다. 시승차는 최상위 모델인 Q트림이다. 17인치 타이어(225/45R/17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됐고, 공인연비는 20.2km/L(복합연비 기준)다. 실연비와 각종 상황에서의 주행 감각에 기대감을 품고 시승에 나섰다.



현대차가 2016년 첫 신차로 선보인 국내 최초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 조용한 실내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주행감각, 안정적 코너 탈출이 가능한 고속 코너링 성능 등을 두루 갖췄다. 사진제공 | 현대차

# 6단 듀얼클러치 효과 특특...최적연비, EV모드 활용이 열쇠

가솔린 엔진 개입된 후에도 부드러운 주행 연비 20.2km/L...EV 활용에 따라 제각각 모터 20만km 무상 등 보증 프로그램 매력

●기본적인 조작감 우수, 부드럽고 조용한 실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으로 개발한 최고출력 105마력, 최대토크 15.0kgf.m의 신형 카파 1.6GDi 엔진과 최대출력 43.5마력(32kW 환산 시), 최대토크 17.3kgf.m의 고효율 영구자석형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시스템 최대출력은 141마력(5700rpm), 시스템 최대토크는 27kgf.m(1단), 24kgf.m(2~6단)이다. 시동을 걸고 저속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EV 모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엔진 소음도 들을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장점이다. 저속으로 시내 구간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실내 편의사양과 차체 크기 등을 주로 살펴봤다. D컷 스티어링휠의 조작감은 만족스러웠고, 각종 계기판과 편의사양은 중형 세단의 풀 옵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

소가 운전석 계기판 외에는 따로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웠다. 실내 크기는 준중형차인 아반떼 수준이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차체 크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다만 뒷좌석 공간은 다소 좁아 보인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만을 사용해 주행하다 가솔린 엔진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아이오닉은 이 부분에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는 확연한 개선을 이뤄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주행 감각이 만족스럽다. 6단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감도 부드럽고 직결감도 우수한 편이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 주행 구간으로 접어들어 중·고속으로 속도를 쭉 끌어올려도 변속충격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마력과 출력의 한계로 고속 영역에서 꾸준한 가속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속 코너링 성능은 만족스러웠다. 2열 뒷좌석 아래에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어, 낮은 무게 중심을 통해 안정적인 코너 탈출이 가능했다. 후륜 서스펜션을 멀티링크 타입으로 적용한 것도 급선회 및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과 접지력을 보여주는 원동력이다. 제법 과격한 주행과 차선 변경에도 기본적인 차체 강성이 뛰어나

구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전장(mm)	4470
전폭(mm)	1820
전고(mm)	1450
축거(mm)	2700
엔진(AT기준)	형식 카파 1.6 GDi
배기량(cc)	1580
최고출력(ps)	105
최대토크(kg.m)	15
모터	형식 영구자석형 3상 동기 모터
최고출력(ps)	43.5
최대토크(kg.m)	17.3
배터리 형식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15인치	22.4
(DCT기준)	20.2
공차중량(kg)	15인치 1380
	17인치 1410

만능직스러운 조작성이 가능했다.

●연비는 운전자 하기 나름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차의 시승행사에서는 연비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EV모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운전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차량 흐름과 도로 상황에 맞춰 70~80km 정속 주행을 해도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경우 EV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 편도 50km구간에서는 최대한 차량 속도를 늦춰 EV모드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 운행했다. 그 결과 연비는 25.9km/l를 기록했다. 공인연비 20.2km/l에 비하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기는 어렵다.

돌아오는 편도 50km구간에서는 시내 구간의 경우 EV모드를 최대한 활용했고, 고속 구간에서는 속도를 70~80km까지 끌어올리면서 EV모드가 최대한 작동할 수 있도록 주행했다. 그 결과 24km/l의 연비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했고, 일부러 저속으로 달

리지 않았음에도 기대 이상의 연비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단 한 번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속도를 내지는 않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비 운전을 하면 공인 연비를 훌쩍 넘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아이오닉을 타면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한다면 연비는 희생해야 한다. 급출발 급가속 등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배놓을 수 없는 매력, 보증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전히 낯선 고객들에게 현대차가 진행하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인 '아이오닉 컨피던스'는 망설임 없는 차량 선택을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다. 기본적인 차량의 품질과 연비가 대규모 시승 행사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평생 보증,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인 모터 전력제어모듈 등은 '10년 20만km 무상 보증', 일반 개인 고객이 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 차량 불만족시 동급 당사의 타차종으로 교환해주는 '차종교환 프로그램', 일반 개인 고객이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 동일 차종으로 교환해주는 '신차교환 프로그램' 등 4가지 보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카셰어링 그린카, 올해 차고지 3000여개로 확대

전국 1100여개 차고지 추가 확보

롯데렌터카(구 kt금호렌터카)가 제공하는 10분 단위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 그린카는 2016년에 전국 3000여개의 차고지(그린존)를 확보,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카셰어링 서비스의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카는 2016년말까지 전국 약 1100개의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000개소 돌파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약 550개의 차고지를 신설, 기존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중심이었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하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약 400개의 차고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고객과 인근 주민 및 매장 직원들이 쇼핑, 여행, 업무용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린카는 지난해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차고지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접근성을 높여왔다. 2014년 1050개에서 한 해 동안 800개 이상의 차고지를 늘려 2015년 말 국내 최대 규모인 1900여개의 차고지를 확보, 국내 1위 카셰어링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한편, 그린카는 차고지 확대와 더불어 카셰어



링 최초로 남은 차량 대여시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빠른 반납 혜택'을 도입하고, 새로 투입되는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선도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린카 김진홍 대표이사는 "올해에는 그린카의 차고지 및 차량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그린카를 타고 스키장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스키장 요금제와 같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카셰어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벤츠, 최대 36% 부품 소비자가격 인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만1000여개 부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한다. 올해에는 주요 부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최대 36%, 평균 2.7% 인하된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CLS-Class의 윗범퍼 및 S-Class의 라디에이터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36%로 인하 폭이 가장 크며, 각각 96만6900원과 2만59600원으로 책정됐다. E-Class의 머플러 권장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5% 인하된 103만 4000원으로 조정됐고, A,C,E,S-Class의 경우 이번 가격 인하나 적용되는 주요 부품 품목 수가 작년 대비 3400개로 확대됐다.

기아차 '2016 기아 스타 어워즈' 개최

기아차는 22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41명의 2015년 판매우수자들과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 등 총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기아 스타 어워즈'를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120대 이상 판매한 112명에게 '기아 스타(KIA STAR)', 180대 이상 판매한 19명에게 '기아 슈퍼스타(KIA SUPERSTAR)', 전국 상위 판매 순위 10명에게는 '기아 판매왕' 상을 수여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더 넥스트 스파크', 극한의 자연환경에 맞서다

미국 '죽음의 계곡' 동서 주행·내구성 점검

쉐보레는 차세대 글로벌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의 탁월한 내구성과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극한 자연환경에서 철저한 시험주행(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약 6년에 걸쳐 개발된 더 넥스트 스파크는 개발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 아래에서 수천 시간에 달하는 성능 시험과 100만km 이상의 주행 시험을 통해 성능, 인락함, 내구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더 넥스트 스파크의 엔지니어링이 한국지엠 기술연구소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소음진동(NVH) 및 기후풍동 시험, 주행성능 시험 등 다양한 성능 시험은 물론 각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성시험 일체를 한국지엠 기술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등 한국지엠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경차개발 기술 역량이 총동원됐다.

한국지엠 경차 개발총괄 김영호 전무는 "GM이 개발하는 모든 차량에 동일한 GM 글로벌의 엔지니어링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넥스트 스파크 또한 이러한 기준에 맞춰 개발됐다"며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철저한 시험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고객에게 드리는 내구성



과 품질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가는 중국 하이룽장 성에 위치한 하이허 주행시험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카스푸카싱 주행시험장, 그리고 여름에는 영상 4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 밸리 등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환경을 넘나드는 테스트를 거치며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 공기역학 테스트는 미국 미시간주 워렌에 위치한 지연 기술연구소에서 이뤄졌다. 공기저항은 동급 최고 수준인 0.34Cd까지 낮아져 획기적인 연비 향상 및 대폭적인 품질을 감소를 달성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지난해 말 북미 시장 수출을 앞두고 전 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며, 시장별로 기존 스파크와 더불어 프리미엄 경차로 판매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